

淑明女子大學校 소장 甲骨文研究**

梁 東 淑*

◁ 목 차 ▷

I. 서론	2. 牛肩胛骨
II. 韓國所藏甲骨片	IV. 眞僞 감별
III. 문자의 讀解	V. 결론
1. 腹甲	

I. 서론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片的 甲骨片을 분석하고 진위를 살펴보려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7片的 갑골편은 1996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중국학연구소에서 본교의 후원으로 개최했던 國際甲骨學討論會에 초빙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중국인 학자 許進雄교수의 소개로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구매하게 된 것이다. 이들 甲骨片은 郭沫若이 한 소련의 중국유학생이자 훗날 중국학 전문가가 된 제자 Fedorenko에게 주었던 것이다. 더 이상의 내력을 모르던 그의 딸 Olga Fedorenko는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甲骨片이 크게 소용되지 않자 許교수에게 매도를 의뢰했던 것이다.¹⁾ 이들 갑골片은 龜腹甲 5편과 牛肩胛骨 2편인데 일찌기 金祖同이 펴낸《殷契遺珠》(1939)에 수록했던 갑골편들이다.²⁾《殷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본 논문은 2001년 숙명 여자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1) 꼭말약이 어떤 경로로 上記갑골편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증여지점이 어디 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2) 《殷契遺珠》는 1939년 金祖同이 펴낸 갑골 수록집이다. 초창기 殷墟에서 출토된 甲骨片은 상당수 중국 외로 유출되었는데 일본으로 유입된 갑골은 대략 12,443편으로 추산한다.(胡厚宣의 八十五年來甲骨文材料之再統計) 金祖同의 自序에 의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갑골문 소장가인 河井蒼廬氏, 中村不折, 堂野前種松, 中島燦曳, 田中教堂, 三井源右衛門 등 六家の 소장 갑골편 중 1500片을 선별해 편찬한 것이다. 저자가 일본에 머물 때 일찍이 三井氏 소장의 몇편을 제외하고는 손수 拓本하고 考釋한뒤 羅振玉의 감수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자료가 유실되어 버려, 제자 六家の 拓本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契遺珠》는 金祖同이 일본의 대표적인 6대 소장가의 소장 갑골편중 자료적 가치가 있는 1500편을 선별해 2권으로 엮어 갑골문 연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拓本은 《殷契遺珠》본을 근거로 하였다.

上記 七片은《殷契遺珠》의 840번·862번·900번·905번·950번(이상 龜腹甲)과 948·949번(이상 牛肩胛骨)으로 수록되었던 것인데 본 박물관으로 전해질 때 네모 상자 속에 미판 위주로 배치하여 948번은 거꾸로 놓여 있었고 840·900·950번은 횡으로 놓여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숙명여자대학 소장 갑골문 1~7편으로 정리하여 840번은 淑 1편, 862번은 淑 2편으로 하고 마지막 949번은 淑 7편으로 순서에 따라 조정하였다.³⁾

본 연구는 이들을 우선 龜甲과 牛骨로 나누어 열거하고 탁본과 모사, 그리고 楷書화한 도판을 실었으며 문자의 考釋과 해설을 붙였다.

II. 韓國所藏甲骨片

중국 河南省 安陽에서 수많은 갑골편이 발견되었고 1899년 그것이 商代 후기의 문자라고 밝혀진 후, 중국고대사회의 현상을 대변할 가장 확실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발견 된지 일 백년에 이르는 갑골문은 많은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4千여자를 발견했고 1千여자가 밝혀졌다.⁴⁾ 중국문자 형성기의 실상과 周代 金文과의 연계를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역사학, 고고학, 고대의 과학기술 연구에까지 필수 불가결의 자료가 되었다.

이 같은 귀중한 자료가 현재 한국에는 8편이 있다. 최초로 갑골편을 소장한 곳은 서울대학교 博物館이며 대형 右肩胛骨 한편을 소장하고 있다. 이 大胛骨은 일본의 關野貞이라는 사람이 1919년 北京에서 구매해 온 것이며 1938년 6월 일본인 安倍能成에 의해 서울대학에 기증되었다. 正反面에 모두 大字가 새겨 있으며 새긴 후 붉게 도색한 흔적까지 남아있는 이 갑골편은 1955년 5월 한국에 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들른 董作賓에 의해 36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는 본 大胛

3) 본 연구에서는 보존상의 문제로 원본 상자는 그대로 두고 변동된 부분은 부분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4) 지금까지 발굴한 갑골편은 胡厚宣이 〈八十五年來甲骨文材料之再統計〉에서 약 15만 여편으로 추산하였으나 최근 香港 香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 沈建華의 《甲骨文字字形總表》(2001)에서는 10만 여편으로 통계하고 있고 갑골 單字는 4千여자되며 정리가 된 자는 3千여자로 추정하고 고석하여 확실히 밝혀진 자는 약 千여자로 잡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甲骨文字典》에도 1千여자가 수록되어 있다.

骨을 분석하여 <漢城大學所藏大胛骨刻辭考釋>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⁵⁾

본 大胛骨은 갑골문의 정수라고 하는 羅振玉이 펴낸 《殷虛書契菁華》 중의 大胛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이며, 동작빈이 본문 속에 있는 <宜于義京> (義京에 宜祭를 지내다)이라는 구절에 근거해 자신의 저작인 《殷曆譜》의 내용을 보충하였으니 내용 또한 매우 가치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董作賓이 釋文만 열거 하였을 뿐 심도있는 풀이를 하지 않아 한양대학교 증여증문과 孫叡徹 교수가 <서울 大學校所藏 甲骨文片研究> 에서 상세한 풀이를 하였다⁶⁾.

1955년 1월 상명대학교 증여증문학과 金經一교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유물실에서 위 大胛骨의 原片을 살펴보면 중 또 다른 갑골 12편을 발견했다. 이들은 1965년 李相伯교수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龜腹甲4편(左腹甲2, 右腹甲2)과 8개의 牛骨이다.

金교수는 12편에 대한 분석을 <한국소장갑골문 12편의 考釋>에 담았다.⁷⁾ 12편의 卜辭 내용을 분석하고 문자의 자형 고석을 통한 연구를 근거로 하면 후대에 새긴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 견해는 중국의 王宇信, 李圃 등 甲骨學者들의 소견과도 일치하여 소위 “舊材料·新文字”의 僞刻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는 도합 13편의 갑골편이 있으나 12편이 僞刻으로 밝혀져 眞刻 甲骨文은 大胛骨 1편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갑골문 7편을 합하면 한국에 소장된 眞刻 갑골편은 도합 8편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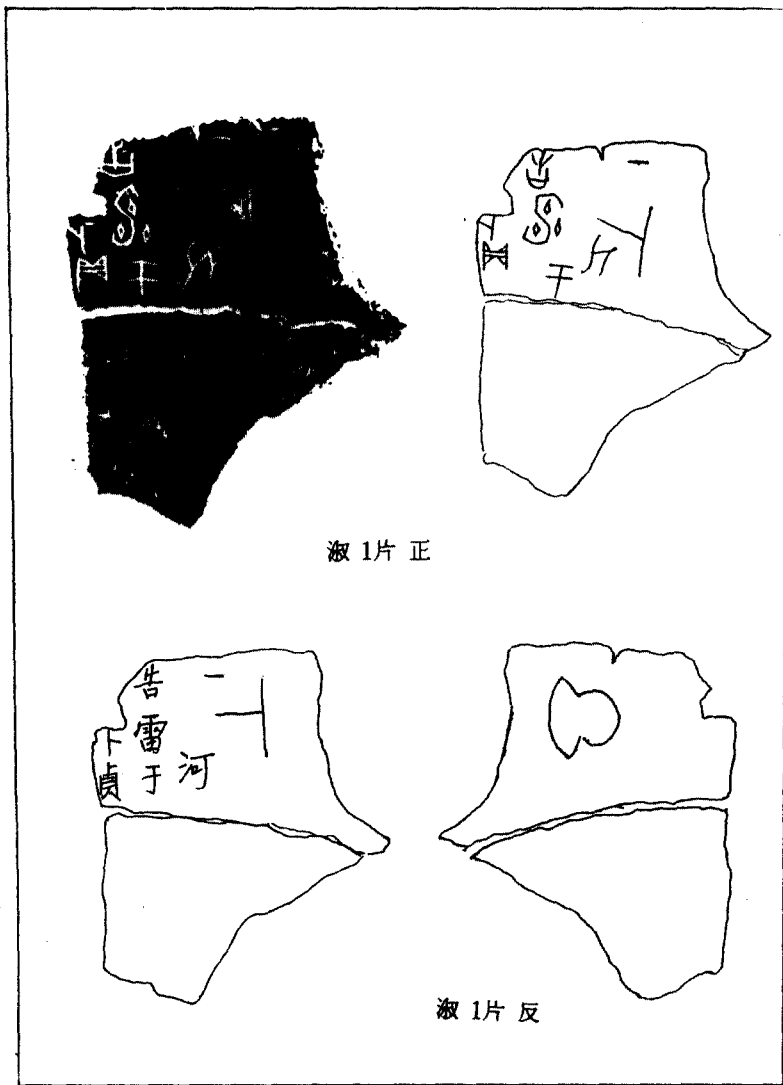
Ⅲ. 文字의 讀解

一. 龜甲

1. 淑 1片

□□卜, 貞 : 告雷于河. 一

- 5) 董作賓 <漢城大學所藏大胛骨刻辭考釋> 《慶祝胡適先生六十五歲論文集》《史語所集刊》, 1957
 6) 孫叡徹 <서울대학교 소장 甲骨文片 研究> 《中國學報》제21집 1980년
 7) 金經一 <한국소장갑골문12편의 考釋>, 《中語中文學》제21집 1997.
 8) 胡厚宣의 <八十五年來甲骨文材料之再統計>에서 한국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6편의 갑골편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이미 작고하여 근거는 알 수가 없다.



- 1). 출처 : 《殷契遺珠》 840 島邦男《殷墟卜辭綜類》122면.
《甲骨文合集》13413.
- 2) 갑골시기 : 제1기
- 3) 龜甲위치 : 전후 좌우가 잘렸으나 卜兆로 보아 右甲이다. 반면에는 鑽鑿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 4). 문자풀이
 - 卜 - 上帝·自然神·祖上神들이 人間의 吉凶禍福을 주재한다고 믿었던 商代人들은 거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점쳐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행했다. 점을 칠 때 먼저 甲骨의 안쪽에 파놓은 타원형의 긴 홈(鑿)과 옆에 판 등근 홈(鑽)에 불을 당겨 지지면 甲骨의 正面에 홈을 따라 卜字 형태의 兆紋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卜字이다⁹⁾. 臺灣 故宮 博物館 張光遠은 실험을 통해 불로 지진 3분 후 파열되면서 'bu'하고 파열음을 낸 것을 확인했다. 그는 상대방들이 이 음을 卜字의 음으로 삼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¹⁰⁾ 卜辭에서는 '점친다'는 뜻으로 썼다. 일반적으로 '卜'처럼 횡선이 바르거나 위로 향할 때 吉兆로 보고 '卜'처럼 아래로 향할 때 흉조로 간주한다는 견해도 있다.¹¹⁾
 - 告 - 告는 舌·言과 同源의 글자로 종을 얹어놓은 모양(徐中舒, 1990-85), 또는 舌 위에 획 하나를 그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양(趙誠, 1986-357)이라고 풀이한다. 告는 일종의 보고성 祭祀, 또는 人名으로 쓰였다.
 - 雷 - 雷자의 자형은 천둥칠 때 전기가 번쩍이는 모양으로 丿와 ㇇로 나타났다. 丿는 申자로 電의 초문이다. 電은 雷의 형체이며 雷는 電의 음이다. 篆文 이후로 雨房을 붙였고 점들은 田으로 변화되었다 (于省吾, 1979-11). 卜辭에서는 자연신으로 추앙했다.
 - 于 - 자형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于는 시간, 장소 등에 붙이는 전치사로 빌어 썼다.
 - 河 - 물수에 무언가를 메고 가는 모양을 합친 자이다. 무언가 메고 가는 모양은 음이 비슷한 可로 바뀌었다. 갑골문에서 河는 황하의 專稱으로 황하 神이며 殷의 先公이름으로 쓰였다 (陳夢家, 1933-56).

9) 董作賓 《商代龜人之推測》p.108

10) 張光遠 《商代甲骨文與占卜探初》《中華文物學會77年刊》p.16

11) 嚴一萍《甲骨學》p.732

5) 한역 : □□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 천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황하 神에게 고제를 드릴까요? 처음 물었다.

6) 해설 : 본 편은《合集》13413번으로 수록되어 있는 갑골편이다.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과 《殷墟甲骨刻辭類纂》에서는 다소 잘린 '告'자를 누락했다. 《甲骨文合集釋文》에서는 告자가 보완되었다.

盾紋이 불룩하고 兆枝가 左를 향해 前右甲으로 사료되며 문자는 千里路에서 左行하였다. 雷는 商代 自然神 중의 하나로 제사를 받았는데 본편은 河에 이를 제사하는 내용이다. 제1기의 文字 특성을 보여주며 특히 雷와 河자가 힘이 있다.

2. 淑 2片

貞 : 其自後(毓)祖乙先. 八月

貞 : 从(從) …

1) 출처 : 《殷契遺珠》862 島邦男《殷墟卜辭綜類》114면

2) 갑골시기 : 제1기

3) 龜甲위치 : 卜辭가 左行된 것으로 보아 左甲으로 보이거나 반면에서도 확증할 만한 단서는 없다.

4) 문자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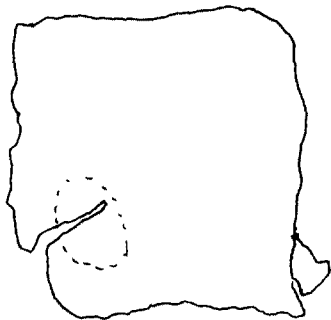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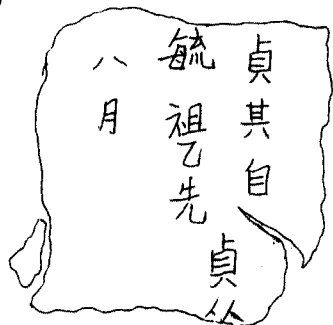
貞 - 鼎의 형태를 뒀으나 鼎形을 새기기가 쉽지 않아 簡化되었다. 甲骨文에서 鼎자로 占쳐 묻는다는 의미를 가진 '貞'을 대신했다. 점친다는 의미의 卜가 첨가된 字形도 자주 보여 이를 증명해 준다. 이는 점차 형이 비슷한 貝로 字形이 와전되었지만 위에 卜를 붙여 의미를 전했다 (李孝定 1992-185).《說文》에서는 「貞, 卜問也. 從卜貝」라고 하여 이미 '점쳐 묻는다'는 원의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其 - 삼태기 형태를 본뜬 자다. 점차 지시대명사로 가차되어 삼태기는 竹을 붙여 箕字로 만들었다 (李孝定 1992-122). 발어서 또는 '웅당' '만약' '장차' 등의 의미로 뒤에 오는 어귀를 강조한다.

自 - 코의 모양이다. 중국인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코를 가르키는데서 인신하여 '자기자신'으로 빌어 썼고 또 '…로부터'라는 전치사로 쓰였다. 自를 대신해 형성자 鼻를 만들었다.



淑 2片 正



淑 2片 反

毓 - 꿍어앉은 여인과 도치된 자의 합체자로 여인이 아이를 낳고있는 모양이다. 毓의 변방의 형체는 人, 女, 每 등 매우 다양하다. 育과 같으며 卜辭에서는 先公先王의 이름, 先後의 後로 쓰였다. 高祖乙은 祖乙을 칭하고 後祖乙은 武丁의 父 小乙을 칭한다 (徐中舒, 1990-1581).

祖 - 且는 신위모양으로 풀이한다. 점차 示를 붙여 祖를 이루었다.

乙 - 물고기나 헤엄쳐 가는 모양이라는 풀이가 있고 (郭沫若, 1962-165), 《說文》에서는 초목이 돌아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商代 先公先王의 稱號와 天干의 둘째 자리로 가차 되었다.

先 - 사람(人)의 머리 위에 발(止)이 놓여 있는 모양으로 앞서간 조상의 발자취를 나타내며 본의는 조상이다. 그밖에 ‘먼저’, ‘앞으로 나아가다’로 인신되었다.

八 - 두 개의 획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으로 ‘분별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卜辭에서는 여덟이라는 숫자로 빌어 썼고 기수·서수를 동시에 나타낸다.

月 - 반달의 모양이다. 자형은 夕자이지만 제1기에는 月을 나타냈고 제5기에는 夕(저녁)이라고 하였다.

從 - 두 사람이 이어가는 모양이고, 때로 세 사람이 잇따라 가는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說文》에서 從을 「相聽也」라고 한 것은 引伸義임을 알 수 있다 (徐中舒, 1990-916). 甲骨文 從과 比는 字形이 비슷하여 혼용되고 있다. 수행하다, 따르다, 인솔하다, 연합하다, ‘…로부터’, 점친 후 吉兆를 얻음 등으로 쓰였다.

5) 한역 : 묻습니다 : 小乙로부터 먼저 제사할까요? 8월

문습니다 : …인솔할까요

6) 해설 : 後祖乙은 商代 先公先王 중의 한사람이다. 先公先王 중에는 祖乙이 두 사람이 있어 13代 祖乙은 高祖乙라 하고 武丁父 小乙은 後祖乙라고 하며 先後를 구별하였다. 본편은 제사의 순서를 정하는데 後祖乙을 먼저 제사할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祖乙은 合文으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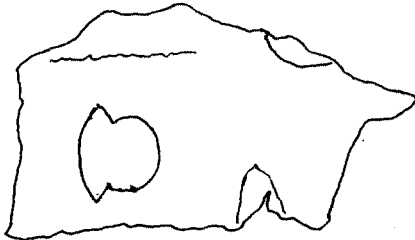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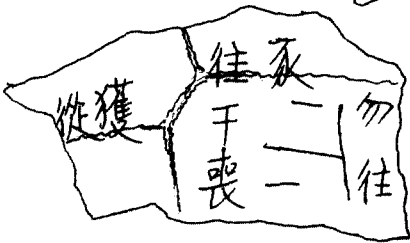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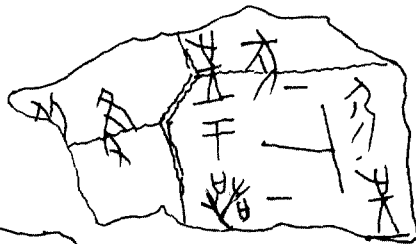
3. 淑 3片

往于喪 …一

… 豕 …一



淑 3片 正



淑 3片 反

勿往

… 獲從

1) 출처 :《殷契遺珠》900 島邦男《殷墟卜辭綜類》191면

2) 갑골시기 : 제1기

3) 龜甲위치 : 前左右甲이 교차된 부분이며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4) 문자풀이 :

往 - 발(止) 아래에 王자가 있는 모양으로 나아 간다는 의미이며, 王은 성부 역할을 하였다. ‘왕래하다’, ‘나아가다’로 쓰였다.

喪 - 뿔나무 위에 열매를 담은 용기가 있는 모양이다. 손으로 뿔잎을 채집한다는 뜻으로 바구니 형체가 불기도 하였다. 喪의 初文이다. 갑골문에서는 인명·지명, 또는 음에 의해 가차되어 ‘상실하다’는 喪으로 썼다 (于省吾, 1979-75). 지명인 경우 喪으로 보며 𠄎의 古字이다. 桑자로 쓸 때는 나무 주위에 바구니 모양의 형체가 없다. 상대의 유물 중에 직조품이 발견되었고 桑자로 보아 양잠의 존재를 방증해 주고 있다.

豕 - 배가 불룩 나오고 꼬리가 짧은 돼지의 모양으로 돼지를 뜻한다.

勿 - 勿에 대한 풀이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勿은 弓의 모양에 활시위가 떠는 모습으로 시위를 당겨 弓弦이 떠는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음이 부정을 나타내는 말의 음과 비슷하여 부정사로 빌어 썼다 (徐中舒, 1990-1041). 둘째 고대 민족들의 갖가지 토렘물이 그려져 있는 상징 깃발을 物이 라고 하였는데 勿은 物의 本字이며 또 雜色 소를 나타낸다 (朱芳圃 1983 文九). 甲骨文에서는 不·弗·亡등과 함께 부정사로 쓰였다.

獲 - 손(又)으로 새(隹)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獲의 초문으로 ‘잡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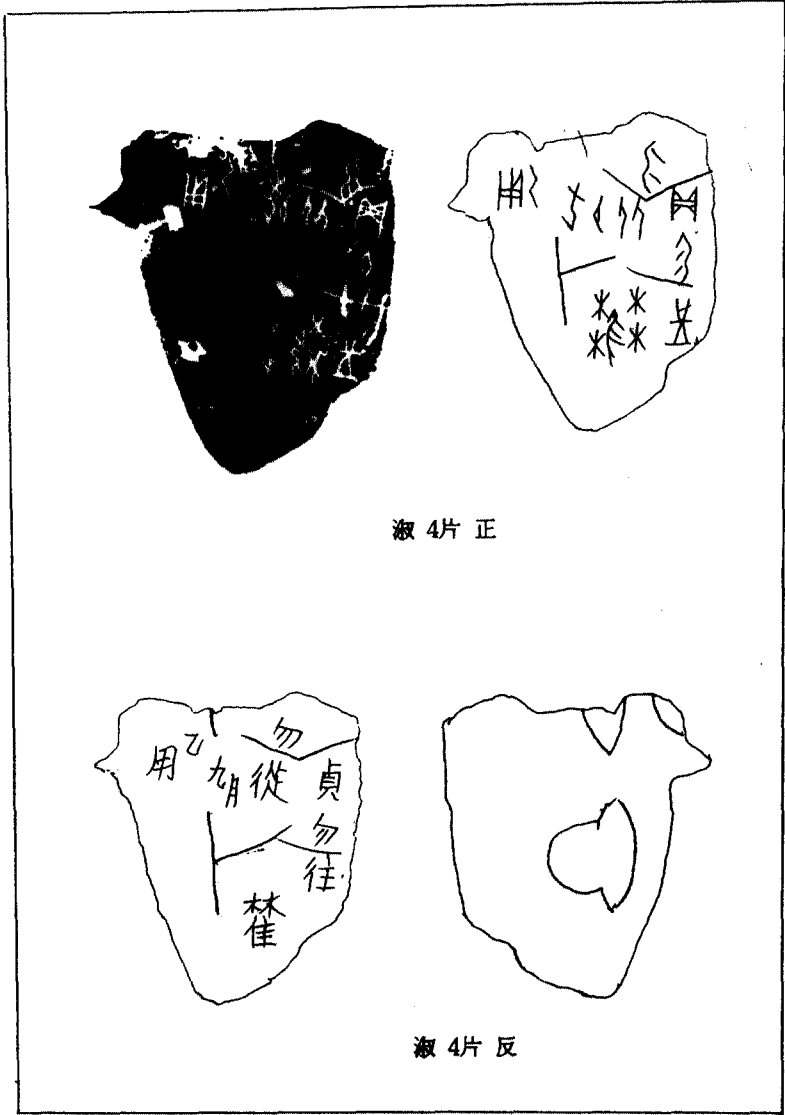
5) 한역 : 喪으로 가서… 첫 음제 물음.

…돼지를 잡을 수 있을 까요?

가지 말까요?

6) 해설 : 본 편 反面에는 鑽鑿이 선명하다.

4. 淑 4片



淑4片正

淑4片反

貞：勿往.

从 𠄎 九月.

勿

… 乙… 用

1) 출처 : 《殷契遺珠》905 《卜辭通纂》別二, 18

2) 갑골시기 : 제1기

3) 龜甲위치 : 左尾甲이다.

4) 문자풀이 :

北 -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으로 처음에는 등을 뜻했으나,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 등은 언제나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점차 이를 빌어 북쪽을 나타냈다. 肉을 붙여 등을 뜻한 背자를 다시 만들었다.

九 - 구부리고 있는 팔의 모양. 또는 도마뱀의 모양이라고도 한다. 숫자 아홉으로 가차 되었다.

用 - 자형에 대한 풀이는 桶의 모양(趙誠, 1986-238)과 골판에 卜兆가 드러난 모양(徐中舒, 1990-354) 등 2가지가 있으나 모두 施行, 使用 등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𠄎 - 갑골문 중 자형이 다양하다. 林자 사이에 隹가 있거나, 세 개 또는 네 개의 木자 사이에 隹가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데 모두 지명으로 쓰인다. (孫海波, 1965-20). 木은 풀 초의 형체와 혼용된다.

5) 한역 : 묻습니다 : 가지 말까요.

… 𠄎에서 9월

…乙…用…

6) 해설 : 千里路쪽의 복사는 아래로 쓰고 左行 하였다. 正面에는 卜兆가 나타나지 않으나 실물로 볼 때 卜兆가 완전하고, 反面에 鑿鑿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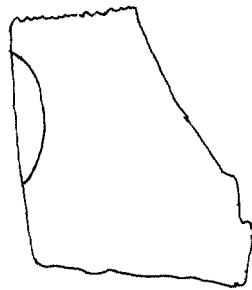
5. 淑 5片

庚子卜, 王

庚□□, 王



淑 5片 正



淑 5片 反

1) 출처 : 《殷契遺珠》 950

2) 갑골시기 : 제2기

3) 龜甲위치 : 龜左甲

4) 문자풀이

庚 - 甲骨文 庚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金文 字形에 의하면 양쪽 끈에 방울이 있고 돌리면 소리를 내는 고대의 악기인 鉦의 모양이다(郭沫若 1962-169). 金文《史父庚鼎》의 庚자에는 양쪽에 작동하는 손의 형체가 남아있다. 甲骨文에서는 殷代 先公先王의 칭호 · 樂名 · 天干의 일곱째 자리로 쓰였다.

子 - 甲骨文 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초기에는 삐죽삐죽 머리에 나 있는 머리털 모양을 했지만 점차 강보에 싸인 어린이 모양으로 두 다리가 하나로 되었다. 巳자와 자형이 중복되기는 하나 전자는 地支의 子, 후자는 地支의 巳로 구별하여 혼동을 피했지만 모두 어린이의 모습에서 변화된 자형이다(徐中舒 1990. 1571).

王 - 왕이 쓴 모자 모양이다. 王의 자형은 갑골문 5시기동안 다양한 형태를 보여 자형으로 斷代할 수 있는 표준이 되었다. 제2기에는 본편 중의 자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3,4기에 줄어들다가 제 5기에 王자형으로 정형화되었다. (제7편 王 참조).

5) 한역 : 경자일에 점을 치고 왕이 (문습니다)

: 경(일에 ...)왕(이 점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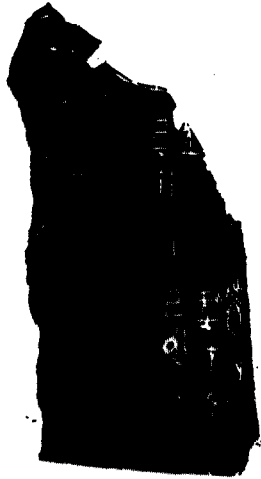
6) 해설 : 전후좌우가 잘려 있다. 복사로 보이나 상부에 齒縫이 뚜렷하며 龜甲임을 알 수 있다.

二. 獸骨

6. 淑 6片

己卯卜, 王 在師癸卜 :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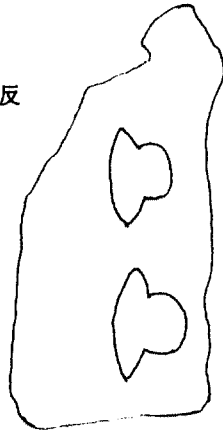
己卯卜, 王 : 二



淑 6片 正



淑 6片 反



1) 출처 : 《殷契遺珠》948 . 島邦男《殷墟卜辭綜類》259면 본 편은 《殷契遺珠》948편의 綴合된 두 조각 중 아랫부분이다. 948片的 전모는(圖1)이다.

2) 갑골시기 : 제2기

3) 龜甲위치 : 左肩胛骨이다. 탁본으로 볼 때 卜兆가 보이지 않으나 갑골실물에는 두 개의 卜兆가 선명하다. 反面에는 鑽鑿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4) 문자풀이 :

己 - 고대에는 화살 끝에 회수가 가능하게 가는 끈을 달아 사용하였는데 이 끈이 繳이다. 羅振玉은 己는 바로 繳의 형상이라 하고, 葉玉森은 무언가를 끈으로 동여매는 모양이라고 보았다. 卜辭에서는 天下의 6째 자리와 先公先王, 先妣의 廟號를 빌어 썼다.

卯 - 돌로 쪼개는 모양(許進雄, 1993-256), 또는 칼로 대응되게 파 놓은 모양(趙誠, 1986-264)등으로 풀이한다. 卯와 劉가 同部인 고로 卯를 劉의 假借字로 보는데 실제로 甲骨文에서 祭品을 칼로 자르는 用牲法으로 쓰였다. 예컨대 「卯一牛沈十牛」(《合》779)(소 한 마리를 칼로 가르고 소 열 마리를 물에 빠뜨려 드릴까요)에서처럼 제사방법으로 쓰였다. 그 외에도 地支의 넷째 자리·지명·인명으로 사용되었다.

在 - 才는 풀이 돌아나는 모양이며 전치사 在의 초문이다. 在는 갑골문에서 장소, 시간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師 - 여로에 쉬고 있는 둔부와 구부러진 다리 모양. 또 언덕바지나 구름을 말하는데 제왕들은 홍수를 피해 높은데 거주했고 주위에는 군대가 수비해 이자로 군대를 뜻했다. 師의 본자 이다. 갑골문에서 군대 또는 군대가 주둔한다는 小篆 次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夔 - 두 개의 火자 아래 옷차자가 있고 衣속에 점이 찍혀있는데 夔자의 初文이다(于省吾, 1996-1959), 師와 결합하여 상대의 지명으로 쓰였다.

二 - 셋 가지 두 개를 포개 놓은 모양. 점친 순서를 나타내는 兆序이다. 동일 내용을 2번째 물었음을 나타낸다.

5) 한역 :

己卯일에 점을 치고 대왕이 師夔에서 묻습니다 : 처음 물음

己卯일에 점을 치고 대왕이 묻습니다 : 두 번째 물음

6) 해설 : 본 편은 제2기의 특성인 ‘卜王卜辭’의 전형이다.

九四八



圖 1



23837

圖 2

제2기의 제왕인 祖庚·祖甲은 親卜하기를 즐겨 친히 많은 占을 쳤다. 왕이 직접 점쳐 물었던 내용을 기록할 때는 「○○卜, 王貞」의 형식을 이룬다. 그러나 제2기에서는 「○○卜, 王」으로 생략하였는데 이를 ‘卜王卜辭’라고 칭하며 龜甲이나 獸骨에 두루 나타난다.¹²⁾

(1) 「卜王卜辭」의 특징

‘卜王卜辭’의 특징은 命辭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¹³⁾ 그것은 大王이 친히 점을 치고는 그 내용을 자신만이 간직할 뿐 기록하지 않아 표면적으로 무엇을 물었는지, 점복 결과는 어떠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제1기 武丁시대처럼 貞人이 왕을 대신 하여 점을 쳤고 貞人집단 까지 이루던 시기에는 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 같은 점복 관례는 제2기에 성행하던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기 卜辭의 특징으로 간주 되는 것이다. 卜辭를 기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의 卜辭는 완전한 문장으로 묻고 그 다음 卜辭들은 첫째 卜辭를 근거로 생략해 나갔다. 그러나 「卜王卜辭」는 첫 번째 복사조차도 점복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 무엇을 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같은 현상은 《甲編》2870 (《合集》23837) (圖2)을 비롯해 적지 않게 나타난다.

戊辰卜, 王 : 在四月. 一
 戊辰卜, 王 : 二
 戊辰卜, 王 : 三
 戊辰卜, 王 : 四

(2) 본 편과 商代 骨簡

① 본 편의 原形

본 편은 두 조각이 綴合된 《殷契遺珠》 948편의 아랫부분이다. 완전한 948편은

12) 劉淵臨 《殷墟‘骨簡’及其有關問題》中央研究院史語所集刊 39本 pp. 237~243

13) 갑골문의 문장 구조는 전문을 前辭, 命辭, 占辭, 驗辭 순서로 기록한다. 前辭는 점복 시행일과 점치는 貞人의 기록이고, 命辭는 점치는 내용으로 占卜의 목적이 된다. 占辭는 점친 후에 점괘를 보고 왕이 길흉을 판단한 내용이며, 驗辭는 점친 결과가 그대로 잘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기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占辭나 驗辭는 생략되고, 前辭, 命辭만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이 23cm 너비 6cm의 骨片으로 左下가 손상된 채 수록되어 있다. 이 골편의 형태와 卜辭의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 골편의 上下段은 칼로 절단된 듯 반듯하고 전체가 장방형으로 마치 秦漢의 竹簡이나 木簡의 형상을 연상시켜 주며 둘째, 卜辭는 이 장방형의 골편이 다듬어진 뒤 새긴 卜辭임을 말해 주고 있다.

② 본 편은 商代 骨簡의 잔영이다.

현재까지 발견한 最古의 竹簡은 睡虎地 秦簡, 郭店楚墓에서 출토된 竹簡 등 戰國시대의 竹簡들이다¹⁴⁾. 갑골문이 발견된 지 일백년이 지났고 15만 여 편이 발견되어 각방면 각 분야의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商代의 骨簡이나 龜冊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여기며 갑골문 중의 冊字나 典字의 자형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을 뿐이다.

《殷虛文字丙編》을 모사한 劉淵臨은 갑골 실물을 다루면서 일부 갑골 조각이 마치 古簡과 흡사함을 보고 殷墟 骨簡의 存在를 이끌어냈다.¹⁵⁾ 가장 대표적인 骨簡의 예로《殷虛文字甲編》2870편을 들었는데, 길이 13.3cm, 폭4cm의 牛胛骨로 좌측에 4개의 卜兆가 있고 卜兆위에 序數 一, 二, 三, 四가 아래에서 위로 새겨졌으며 卜辭는 兆干의 좌측에 左行으로 쓰여있다. 이 骨簡에 주목하는 것은 骨片을 일정 크기로 잘라 骨簡의 형태로 갖추어 놓은 다음 占卜하고 卜辭를 새겼다는 점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최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4개의 卜辭와 上下 변과의 사이가 일정 간격을 이루고 있고 反面의 鑽형태와 변의 간격 역시 같으며, 骨片의 3면이 매끈하게 잘린 형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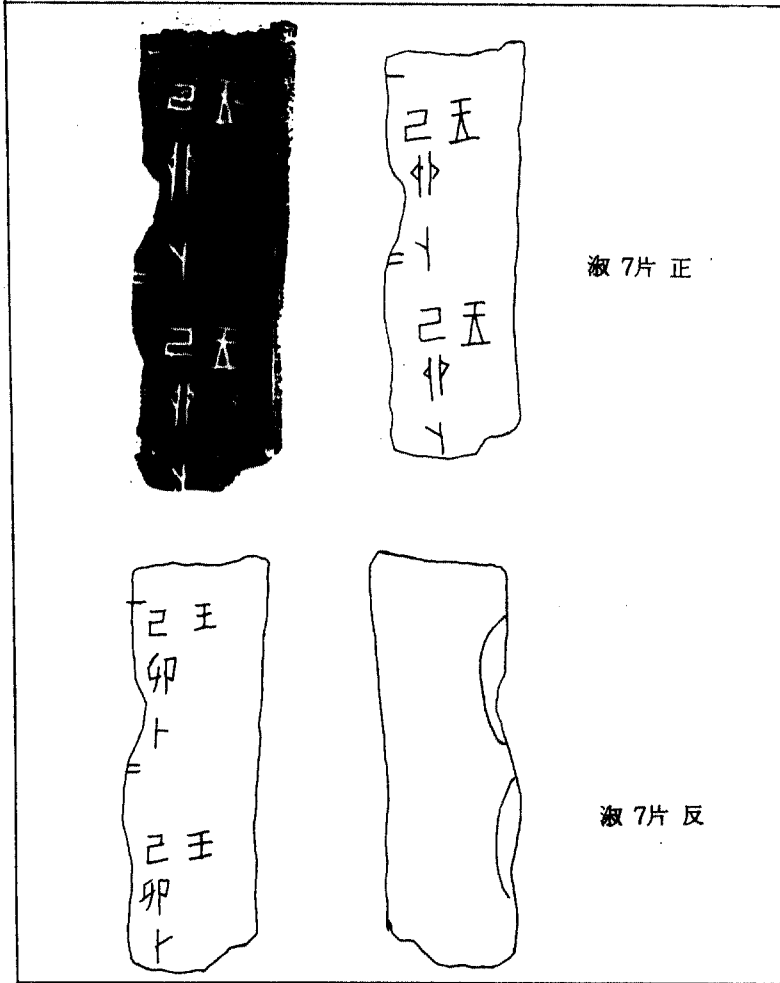
于省품의 《雙劍謠殷契駢枝》의 212편으로 실은 牛胛骨은 길이 21cm 너비 약 5cm의 장방형으로 嚴一萍은 이를 骨簡이라 칭했는데 牛肋骨로 보는 까닭은 긴 면의 양쪽이 자연상태이며 윗 부분은 손상이 되었으나 아래 부분은 칼로 바르게 잘랐고 다듬어진 骨片에 문자를 새긴 것같이 양변의 여백이 매우 자연스러워 인공으로 다듬어 만든 骨簡의 좋은 표본으로 본 것이다.¹⁶⁾ 본 편의 크기는 바로 이 骨簡과 비슷하다.¹⁷⁾ 上述을 근거로 하면 商代의 골간은 최소한 크고 작은 두 형태가 있

14) 周鳳五, 〈郭店楚簡的形式特徵及共分類意義〉, 《郭店楚簡國際學術研究討論會文集》, 2000.

15) 劉淵臨는 骨簡이 주목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鐵云藏龜》, 《殷墟書契前編》같은 초창기의 갑골 수록저서들은 卜辭가 없는 甲骨片의 빈 공간은 잘라버리고 수록해 갑골편의 실제 형태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 上揭書 p.244

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서사 용구로서 일정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骨簡일지라도 크기에 엄격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龜腹甲의 다양한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17) 字甲의 경우 腹甲이나 背甲을 막론하고 먼저 일정형태로 다듬어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마다 꺼내 占卜하고 卜辭를 새겼다. 殷墟에서 발견된 背甲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여러개의 背甲을 포개 줄로 꿰는데 썼던 구멍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1993년 小屯 東地 花園莊에서 발견된 龜腹甲의 甲橋 양면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 역시 腹甲의 정리 후나 卜辭를 새긴 뒤 줄로 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 商代 龜冊의 存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7. 淑 7片

己卯, 王
己卯卜, 王

1) 출처 : 《殷契遺珠》949

2) 갑골시기 : 제2기

3) 龜甲위치 : 卜상기 右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左肩胛骨이다.

4) 문자풀이 :

王 - 왕이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 그 외에도 王字는 집행하거나 殺生에 주로 쓰이는 斧鉞의 모양으로 날 부위를 밑으로 향하게 한 모양으로 商代에 王權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징화했다는 견해가 있다. 《說文》에서는 「王, 天下所歸往也, 孔子曰 : 一貫三爲王」라고 풀이하여, 本義와는 차이가 있다. 甲骨文에서는 商왕조의 조상 이름과 商王을 지칭한다.

5. 한역 : 기묘일에 ...왕이 묻습니다.

: 기묘일에 점을 치고, 왕이 묻습니다.

6. 해설 : 본 左肩胛骨은 骨質이 두꺼운 右骨邊에 문자가 새겨 있다. 실물은 正面과 反面 사이가 두 조각으로 잘려 있다.

IV. 眞僞 鑑別

본 七片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일본의 소장가들에 의해 소장되었다가 金祖同의 《殷契遺珠》에 수록된 갑골편 들이다.

갑골편의 진위 논란은 갑골문 발견 초기부터 야기되었다. 그러나 초기 갑골학자들은 감별에도 뛰어나 일부 외국 소장가 들을 제외하고는 중요저서에 僞品은 가려졌다.

본 7편은 金祖同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별되었고 이어 갑골학자들의 辨僞작업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은 두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郭沫若의 본편 입수 경위나 증여지점을 알 수가 없으나 꼭말약에 의한 증여는 Olga Fedorenko에 의해 밝혀졌으며 郭沫若 또한 진위 감별에 뛰어나 감별에 소홀하지 않았을 것

으로 본다.

무엇보다 淑一片은《甲骨文集》에 수록됨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숙명여자대학에서 개최한 國際甲骨學討論會에 참가했고 本 七片의 구입을 도와준 許進雄교수와《甲骨文集》의 갑골편 선별작업에 참가한 中國社會科學院 王宇信교수의 진위감별은 眞品임을 확신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甲骨 7片을 살펴보았다. 上記 甲骨片은 金祖同, 郭沫若, 許進雄, 王宇信등 저명한 갑골학자들의 손을 거치며 감별되어 확신할 수 있는 진품이다.

7片 갑골편들의 내용은 갑골 제1기 제사·수렵 관련 卜辭와 제2기의 '卜王卜辭'가 주종을 이룬다.

淑 1편은 제1기 祭祀卜辭에는 상대 선공선왕 중의 한사람인 後祖乙에 祭祀했고, 淑 2편은 自然神으로 간주했던 雷에 대한 기록이다. 淑 3편은 狩獵卜辭로 喪(噩)에서 사냥했던 상황을 기록했고, 상황이 순시했던, 葬 등의 지명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淑 1片은《甲骨文集》13413편으로 수록되어 있는 갑골편의 원본인 점이 주목할만하다. 淑 6편은 경우 잘 다듬어진 骨片에 10차례 점을 쳐 물어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시사하는 骨片 중의 중첩 내용이지만, 占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통해 骨簡에는 아래에서 위로 占卜해 물었음을 알 수 있다.

上記 甲骨 7편의 갑골편은 비록 큰 조각은 아니지만 각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雷, 河, 獫, 豕, 月 등은 제1기의 특색을 나타내며, 王자의 자형은 第2期の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적 사실은 갑골문의 연구에는 가능한 한 실물 甲骨片의 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淑3片, 淑4片, 淑6片은 탁본으로 볼 때 正面이 모호하여 전혀 보이지 않는 卜兆가 실물 甲骨片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또한 淑5片의 경우 탁본만으로는 龜甲인지 肩胛骨인지 분간할 수 없으나 甲骨 실물에는 상단에 齒縫이完연하여 龜甲임이 확실했다. 특히 본 7片의 反面 제시는 실물 갑골편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갑골문의 연구에 실물 甲骨片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參考文獻】

- 金祖同 《殷契遺珠》，上海中法文化出版委員會刊印本，1939。
- 郭沫若 主編 《甲骨文合集》，中華書局，1978。
- 胡厚宣 主編 《甲骨文合集補編》，語文出版社，1999。
- 胡厚宣 主編 《甲骨文合集釋文來源表》，社會科學院出版社，1999。
- 董作賓 主編 《殷虛文字甲編》《乙編》，中研史語所，1956。
- 張秉權 主編 《殷虛文字丙編》，中研史語所，1956。
-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90。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1996。
- 孫海波 《甲骨文編》，中華書局，1965。
- 趙誠 《甲骨文簡明辭典》，中華書局，1986。
- 姚孝遂 《小屯南地甲骨考釋》，中華書局，1985。
- 于省吾 《甲骨文字釋林》，臺灣，大通書局，1981。
- 馬如森 《殷虛甲骨文引論》，東北師大出版社，1993。
-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臺灣，大通書局，1945。
- 孟世凱 《殷墟甲骨文簡述》，北京，文物出版社，1980。
- 張秉權 《甲骨文與甲骨學》臺北，中華書局，1986。
- 劉淵臨 《殷墟‘骨簡’及其有關問題》，中央研究院史語所集刊，39本。
- 周鳳五 〈郭店楚簡的形式特徵及共分類意義〉，《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00。
- 董作賓 〈漢城大學所藏大胙骨刻辭考釋〉，《慶祝胡適先生六十五歲論文集》《史語所集刊》，1957。
- 孫毅徹 〈서울대학교 소장 甲骨片研究〉，《中國學報》제21집，1980。
- 金經一 〈한국소장갑골문12편 考釋〉，《中語中文學》제21집，1997。

【中文提要】

本論文分析了淑明女子大學校所藏的七片甲骨文，並考察了甲骨片的真偽問題。

此七片是在1996年參加淑大中國學研究所主辦的‘國際甲骨學討論會’的許進雄教授介紹之下，淑明女大博物館購買的。

此七片為初期流傳於日本的甲骨片。當初金祖同在日本從日本六大收藏家之所藏甲骨片中選1500片而成的《殷契遺珠》(1939)裏收錄過的。後來郭沫若將此七片贈送給蘇俄的中國傳

家 Fedorenko.他的女兒 Olga Fedorenko 到加拿大移民之後託許進雄賣的

本七片爲龜腹甲五片, 和牛肩胛骨二片. 甲骨片本身並不大的, 時代只限於第一期, 第二期, 內容有第一期的祭祀卜辭, 狩獵卜辭, 及第二期的卜王卜辭. 但表出各時代的特徵. 特記的事乃其中一片爲《甲骨文合集》(13413) 中收錄的重要內容.

至於真偽問題, 本七片首先經過金祖同的選別, 再來通過了郭沫若的手. 此兩位傳家以外, 又經過了許進雄教授, 及中國社會科學院王宇信教授的眞偽辨別, 此七片爲眞刻毫無疑問的.

淑大博物館所藏七片甲骨文之前, 漢城大學博物館所藏了一片大肩胛骨. 是1938年日本人安陪能贈送的. 由此韓國所藏甲骨文共有八片.

【주제어】

숙명여대소장 갑골문, 殷契遺珠, 제사복사, 수렵복사